

싫어도 보직을 맡는 이유 하나

정진경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최 근 대학평가제의 교수진 평가란에는 교수들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항목이 포함되리라고 한다. 교수사회에도 연고주의가 인습적으로 통용되면서 합리적 인사선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항목으로 생각되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교수진의 평가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다. 남녀의 비율이다. 거의 모든 대학의 모든 과의 교수선발에서 강력한 차별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판단의 만연함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사회에서는 암묵적인 '상식'으로 용인될 뿐 의식의 후진성으로 인해 공식적 논의에는 부처지지조차 않는 문제가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여성은 교수로 임용될 확률이 낮다. "학력이나 경력은 탐나는데 여자라"라는 말은 정당한 거절사유로 통용되고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면 "상식이 없는 것"이 된다. 과에 여자 교수가 이미 한 명 있으면 여자가 더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왜 말이 안 되는가 따지면 이제는 상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된다. (이 글에서 " "표 안에 인용된 말들은 모두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대화에서 따온 것이다.)

여성들은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경우에도 대개 남성에게 비해 하향적으로 취직이 된다. 같은 학력과 경력일 때 명성이 덜하고 교수들이 덜 선호하는 대학에 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교수 한 분은 S대에서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과에서 석사까지 받은 후, 높은 경쟁을 뚫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는 그 즈음 한창 관심이 물리는 분야를 전공하였고, 그의 모교에서는 그 분야의 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연히 임용될 것 같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작은 여자대학으로 갔다. 그때에 그가 은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자네가 남자이기만 했다면”이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대부분의 교수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난관을 뚫고 교수가 된 후에도 대학사회는 여자 교수들에게는 계속되는 차별의 현장이다. 승진은 거의 자동으로 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보직의 경우는 차별의 정도가 극심하다. 보직에 대한 생각은 교수 개개인마다 그의 가치관, 취향, 적성에 따라 다 다를 것이나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직은 절대로 안 맡는 유형이다. 대학시절 나의 은사님 한 분은 그 분야의 존경받는 대가이셨는데 보직이라고는 학과장밖에 안 지내셨다. 학장, 대학원장 등의 교섭이 왜 없었겠는가마는 한사코 거절하시고 고고한 선비의 자세로 연구에만 몰입하셨다. 둘째는 보직은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므로 자신이 할 차례가 오면 의연히 받아들여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유형이다. 학자이면서 동시에 유능한 행정가인 교수들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학을 훌륭히 이끌어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절로 존경심이 우러난다. 셋째는 교육과 연구보다는 보직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하나 끝나면 다른 것을 맡고 때로는 접치기도 마다하지 않는 유형이다. 동료들이 보기에 교수로서 딱한 경우이다.

여자 교수들은 자신이 이 중의 어느 유형이든 간에 보직을 맡는 경우가 별로 없다. 좀 애써달라는 부탁을 애초에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활과학대(구 가정대)학장을 지내신 한 여자 교수님은 “학장이 되어 대학본부에 회의하러 다녀보니까 학내에 웬 보직이며 위원회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리고 여자 교수들이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작년에 나는 보직을 하나 맡았다. 대학본부에서 온 전화를 받고 대답을 하기까지 이삼일 동안 여러 모로 생각을 해보았다. 전화를 받은 직후에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았으나, 보직은 당분간은 더 피하고 싶었다. 그 동안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방학에는 두어 달 외국 대학에도 다녀오고 싶었고,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바쁘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나보다 연세가 한 이십 년씩은 위셨던 전임자들로부터 중간을 훌쩍 건너뛰어 난데없이 나에게 떨어진 자리를 맡기가 이모저모로 곤란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자아개념 속에는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 보직을 맡았다. “여자들은 보직을 맡기면 못한다고 필쩍 땀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맡은 바에는 그 일을 잘 해내려고 꽤

노력하고 있다. “여자가 하는 일이 그렇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쯤 되면 피해의식인데, 늘 피해를 보고 사는 상황에서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피해의식이 없을 수 있는가. 얼마 전 여자 교수들의 연구모임을 마친 후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바로 이 보직 이야기가 나왔다.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것은 패שמ하다.”, “만약 해달라는 부탁이 온다면, 여자이기 때문에 싫어도 의연하게 맡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조기 퇴직하고 다른 일 하고 싶지만, 뒤에서 좋아할 남자 교수들 얼굴이 생각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년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대부분 40대 초반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중견들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깊이 피해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여성이 교수사회 내에서 받는 차별이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의 능력이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라는 말은 너무 구태의연해서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것은 성차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차의 문제이며, 남자 교수들이 그러한 문제를 지닐 확률이 실제로 더 높을지라도 여자 교수가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어쩌다 있는 그들의 문제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착각적 상관’이라고 설명한다.

여자 박사, 여자 교수들은 모두가 성차별적인 사회화 과정과 교육제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여 성취를 이루어 낸 사람들로서 일단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자세로 평생을 교수생활하면서 제자도 많이 키워내고 학교일도 많이 하신 어느 대선배 여자 교수님은 바른 성품과 확실한 일처리로 은퇴에 즈음해서 “이 대학에 정말 신사는 0선생 하나야.”라는 평판을 들었다고 한다.

교수의 선발이 같이 술먹고 함께 2차 갈 수 있는 남자라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유능한 후배, 제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이 안 되어 풀죽어 지내는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남녀가 진정한 동료로서 우의를 지니고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 교수들은 각자가 소신껏 보직을 맡거나 맡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길 것이다. ▣

정진경/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심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원 및 서강대, 연세대 강사 등을 지내고, 현재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태도, 고정관념 및 성역할에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